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릴라가 죽었는데,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여 고릴라 옷을 입고 죽은 동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했어요. 직장에 온 첫날이었고 그 남자는 고릴라처럼 행동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뭔가 설득력 있게 움직이려다가 울타리 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발을 헛디뎌서 그 옆에 있던 사자 우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해고될 거라구요!"

이 동물원에는 도데체 실제 동물이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동물원에선 몇명의 사람들이 도데체 동물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고쳐가며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연기하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 앞에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고, 14절로 17절까지는 이 여인을 고치신 일로 파생된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열 여덟 해 동안이나 몸이 불편했던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눈물로 회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주목하셨고, 부르셨고,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생각해 볼 만한 단서가 있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11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할’만큼 병약했구요, 따라서 바로 설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은 회당에서 뭐하고 있던 걸까요? 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나갔던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 말이죠.

비록 이 여인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었지만,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갔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몸이 꼬부라져서 펴수조차 없으니깐 나는 회당에 못 가!’ 라든지 혹은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게 뭐가있어?’ 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이 여인... 예수님이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회당에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녀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부러졌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왔던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2.두번째로, 이 치유의 기적이 있자마자,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를 시기하고 분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 ‘분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이 하나 세워졌어요. 회당은 히브리말로 [베트 암]

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백성의 집” 입니다. 영어로 synagogue라고 하는데 이 말은 syn(함께)와 ago(인도하다, 데려가다)의 합성어예요. 성경 봉독, 찬양, 기도, 성경에 대한 해석이 회당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당장은 교회 건물 관리인이 아니었어요. 회당에 관한 재정, 제의, 행정을 책임지는 중책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오히려 담임 목사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자마자 지금 회당장이 분을 내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비교면서 말하길, ‘일할 날이 셋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당시 안식일 법에 따르면 일을 하면 안되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가장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날’이었거든요. 일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만 골몰한 나머지,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보통 행하고 있는 일, 즉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사실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던 가축들을 안식일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소나 나귀 같은 짐승에게도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야 하거늘, 하물며 이 여인을 훨씬 더 큰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그러한 딸에게 너희가 소나 나귀에게도 당연히 베푸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행동과 말씀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가장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날’이었지만 예수님의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회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날이 아니라, 혹은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도, 찬양, 말씀, 구제, 친교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길 소원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헌신했던 헨리 C.모리슨(Henry Morrison)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00년초부터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가족을 잃기도 하고 건강도 잃고 이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와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항구가 떠들썩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선교사님이 배를 나갔을 때는 레드 카펫도, 팡파레도, 심지어 그를 맞아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40년 제 청춘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고향에 돌아온 결과란 말입니까?" 말없이 허탈감에 공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네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너의 본향에 돌아올 때, 내가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 카펫에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1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했냐, 범했냐 안범했냐 만을 중요시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사람을 세워주고,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본향에 이를 때까지 1.바른 예배자로 사시고, 2.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남들도 자유케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